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6년도 표어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하나님께만 소망

(시편 28:1-9)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며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눅 18장).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들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1. 간절한 기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1절).

다급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죽음의 자리로 떨어질 것을 아는 시인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거나 하나님을 빗잡아 대하듯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2절).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로 기도자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성소는 법제가 있는 곳으로 속죄의 날에 피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피 흘림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치욕적 종말을 맞게 될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시인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2. 시인의 탄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하나이다”(3절).

악인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과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지창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부인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악인을 처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원수 된 자들이安然하게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배치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확립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짓밟히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을 관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그렇게 반대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3.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여호와를 찬송함이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라”(6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다윗은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이며 주의 산업이라고 하며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미련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꼴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은 존재이므로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은 하나님만이 보장하십니다.

다윗은 기도한 후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문둥병자 열 명을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7절).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힘과 방패라고 불렀습니다. 원수가 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라”(8절).

더욱 감사할 일은 자연인 다윗이 아닌 왕으로서의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요셀 까닭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 야곱 까닭에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 까닭에 276명의 사람들을 풍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인 다윗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만 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힘이 되십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기도는 개인에게서 백성으로 넓혀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급할 때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감사는 할 줄 모릅니다. 기도와 감사는 같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한 만큼 감사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자는 위급할 때 기도하고 혈통할 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4. 왕으로서의 기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9절).

왕 다윗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이 시를 끝맺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붙잡아주실 분은 왕인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백성의 힘이 되시고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며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이며 주의 산업이라고 하며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미련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꼴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은 존재이므로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은 하나님만이 보장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매주일 밤 9시
- KBS(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종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을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성 금요일(4월14일) 금식선포

내일부터 부활절(16일) 전까지 6일 간 성도들은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10일(월)부터 15일(토)까지 새벽기도회 시간(오전 5시30분)에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동안의 행적을 묵상하는 메시지를 받으며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 금요일(14일)은 해있는 동안 금식을 선포하여 모든 성도들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고난을 체

험하고 이날 금식헌금은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쓰여진다. 성 금요일 다락방 모임은 교회에서 모든 다락방 식구들이 8시부터 한 자리에 모여 경건하게 드린다. 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으며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도록 기도한다.

부활절을 감사와 기쁨으로

새벽예배 · 성찬식 · 음악예배 · 생명살리기 운동 등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을 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 다음 주일로 다가온다. 해마다 춘분이 지난 만월(Full Moon)후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교회 최대의 명절이다. 안식(토)후 첫날(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처럼 부활절 새벽예배(새벽 5시)는 성도들에게는 뜻 깊은 시간이다. 이번 부활절 새벽예배 설교는 김영한 목사(협동목사)가 맡는다. 주일 낮 1, 2, 3부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이 있고 부활절 감사

헌금을 바친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교회학교도 각 부서별로 부활절을 준비하며 은 교회 성도들은 총회 생명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죽은 생명에게 예수 부활을 전함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케 하는 전도사역에 힘을 쏟을 것이다. 성도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증거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한다.

육군 사관학교 진중 합동 성례식

4월 12일(수) 오후 7시 육사 교회에서

2006년도 육사 진중 합동 성례식을 우리교회 비전2020운동본부의 후원으로 4월12일(수) 오후 7시 육사교회에서 열린다. 민족의 75%를 복음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전2020운동의 일환으로 사관생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세례를 받아 정규 교육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되어 앞으로 군 복음화와 함께,

민족 복음화의 훌륭한 파수꾼으로 성장하게 된다. 육사성례식은 세례식과 함께 참석한 기독교 사관생도와 일반 성도 700여명에게 성찬예식도 갖게 되며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의 설교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으며 성찬위원으로 우리교회 11분의 장로들이 수고하게 된다.

선교사들 활발한 선교활동에 나서

우리교회 파송선교사들이 활발한 선교활동에 나서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조남해 선교사는 본교회의 지원으로 쇼자파트 방글라데시(조남해 선교사를 비롯한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선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엔지오 산하 프로젝트로 '소망호스텔'을 설립할 예정이다. 소망호스텔은 현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과 마을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는 이들을 모아 미래 교회 지도자로 키우며 우수 인재를 발굴, 소망호스텔에 입소시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진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교회는 현지의 선교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타라즈 지역에 교회당 신축을 준비 중인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는 교회신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면과 건축비용을 교회에 보고하였다. 이소식을 들은 우리교회 한 성도의 가정에서 현지 교회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헌금하는 등 은혜 중에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선교사가 보내온 도면에 따르면 타라즈 교회당은 건평 54.5평으로 가로 12M, 세로 15M, 벽두께 380mm, 벽 높이4.5M로 아담한 교회당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모든 것이 열악한 현지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손길을 통해 방글라데시와 카자흐스탄의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한다.

세계 중요도서관에서 감사편지 도착

영국 런던 대영 도서관, 일본, 미국 등 그리고 국내 대학 도서관들로부터 서울교회 성도 2,050명이 필사한 성경사본을 기증받고 놀라운 희귀본으로 소장케 되었다는 감사의 편지가 계속 도착하고 있다. 문화의 기독교화를 기도하고 있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기도 열매가 전 세계 지성인들의 가슴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교회 지하1,2,3층 물청소

4월15일(토) 오전 9시

우리교회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스테반회(회장 김영주 집사)는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4월15일(토) 오전 9시부터 하루 동안 지하1, 2, 3층 주차장의 겨우내 쌓인 먼지와 열화칼슘 등 온갖 쓰레기를 청소하고 물로 씻어낸다. 따라서 하루 전인 14일(금)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모든 차량은 지하에 주차할 수 없다. 성도들의 협조 가운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당이 꾸며지도록 부탁드린다.

다이스포라부 영어교실 개설

대한민국으로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과 그 자녀들이 지금까지와는 너무도 다른 문화와 환경에 힘들어 하고 있다. 북한에서 탈북한 이들이 좀 더 빠르게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복음 확장의 기회로 삼고자 디아스포라부에 영어교실을 개설한다. 영어교실은 영어예배부 부감으로 수고하고 계신 오영숙 권사가 학감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윤 목사 CBS TV 방송 주일 밤 9시로 변경

이종윤 목사 설교방송 시간이 일부 변경된다. CBS-위성 채널 412번에 방송되고 있는 이종윤 목사의 설교가 오늘부터 매주일 밤 9시에 방송된다.

전국시민 양성-새가족부를 수료하며

눈에 보이며 손에 잡히게

최미희 성도(4교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가족부를 수료하는 최미희입니다. 제가 마음이 여리고 두려움이 많아 서울로 이사 한다는 것이 너무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10개월 전에 직장 따라 서울에 왔으니 마음에 갈등도 많았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부부가 합쳐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일가친척과 교인들은 서울과 대구의 경제적 수준이 다르다는 것과 자녀 전학 문제 등으로 이사를 못 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까지 말입니다.



이사 오는 그 다음 주에 서울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미 남편은 대구에 내려오지 않을 땐 서울교회에서 새벽기도회와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서울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있어서 친숙했습니다.

막상 이사를 와 보니 말씨가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달라서 어리 벉한 모습으로 몇 주를 보내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여러 형제자매들이 성령 안에서 환대해 주셔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평안을 누리며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차츰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가족부에서 받은 따뜻한 사랑, 항상 꼭 간직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만민에게 전도-전도학교를 수료하며

하나님의 비밀

김숙자 성도(4교구)

창세 전에 택하신 저를 4년 전 서울교회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시어 많은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저의 부족함으로 오는 고난조차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학교에 등록하였습니다.

저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어서 양가 부모님 한 분씩 구원하여 주심에는 정말 꿈을 꾸는 듯 감동만 하다가 어느 날 앞 집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지만 그 분들의 무표정하고 험한 인상에 겁이 나서 입도 뻥긋 못하고 혼자서 기도만 하다가 17기 전도학교에 들어오면서, 전도대상자로 적었습니다.

전도학교 교육 중에 지도 목사님께서 전도대상자를 위해 죽기까지 기도하라고 하셔서 정말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목요 축호 전도팀에서 배운 겸손한 인사와 함께 성경책을 선물하였습니다. 며칠 후 앞 집 어머니께서는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비밀하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확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전에서 그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소중한 경험은 목요축호전도팀과 함께 도곡역



슬 아파트에 전도하러 갔던 때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에 70인전도대원 모두가 절대적인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도학교에 함께 등록한 남편은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분을 전도대상자로 정해놓고 기도하였는데 그 분이 15년 이상이나 즐기던 음주가무를 청산하니 저처럼마다 마시던 술을 안마시니 심심하다며 학업에 몰두하는 신기한 현상을 보여 주변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하심에 감동했습니다. 구원받은 지 몇 개월 안 되는 친정아버지께서 교회 주보를 차곡차곡 모아 두신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70인전도대 중보기도팀의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부족하지만 목요축호전도팀에 합류하여 70인전도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열심히 배우고 끝까지 기도하여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함으로 서울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고난주간의 기도

십자가

김숙자 권사(12교구)

끌고다 언덕 위
고난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주님 발자욱

아무도 갈 수 없는 주님 가신 길
내 죄 사하러 죽으신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흐르고

모진 고통
인내로 끝까지 견디어
죽음까지 순종하시며
나를 사랑하신
부활의 주님

거짓과 불순종 더러운 모습
마다하지 않고
손 내미시며
괴로울 때 나를 보라
부르신 주님

그 길은 진리의 길
내가 가야할 길
고통과 인내와 사랑
소망으로 가는 길

드높이 세워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주님만 사랑하렵니다

제 18기 전도학교 개강

18기 전도학교가 주일반과 화요일반으로 두번 나뉘어 열린다. 주일반은 오후 2시 901호에서 화요일반은 오전 10시 603호실에서 각각 열린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필그림 산우회 주최 산상기도회

필그림 산우회 주최 산상 기도회가 열린다. 4월15일(토) 새벽기도회 후 교회를 출발, 청계산 정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영광을 감사하는 산상 기도회 및 노방전도에 나선다.

민약한자 구제- 교회학교 교사 노숙자 방문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밥통 뚜껑을 열자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밥 냄새가 열을 지어 기다리던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고 있다.

굶임없이 밀려드는 노숙자들의 행렬에 밥 푸는 손길이 더 바빠진다. 밥 푸는 소리, 반찬 담은 소리, 국 푸는 소리, 노숙자들의 급한 숟가락 소리와 그리고 찬양팀의 찬양소리가 서울역 지하도에 가득 어우러졌다.

거친 생활로 겨울 추위만큼 얼어붙었던 노숙자들의 몸과 마음들은 때로 거친 욕설과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를 갖게했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이내 마음이 녹아내린듯 하였다.

지난 4월 6일 목요일 초저녁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가 있었다. 지난 교사헌신 예배를 드리던 주일, 모든 교사들이 한끼를 금식하며 모은 특별금식헌금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는 각 교육부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참여해 이웃에게 주님의 사



랑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숙자들을 위해 준비된 식사 양은 하루에만 1000인분, 혜택을 받은 노숙자의 수는 하루에만 약 800여명, 또한 밥이 도착하기 몇 시간 전부터 웅기종기 모여앉아 일찍 자리를 잡은 노숙자들의 수는 약 300여명에 이르렀다. 우리도 주님이 안 계시다면 영적 노숙자임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

노숙자들에게는 식사 시작 전 짧은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또한 각 교회학교 찬양팀이 참여해 식사시간 동안 찬양하는 모습이 은혜로웠다.

짧았지만 값진 이번 행사로 인해 많은 노숙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앞에 돌아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오주명(편집부)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곱 말씀

류경기 집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가브리엘 찬양대는 이번 부활절을 맞으며 프랑스의 작곡가이며 오르간연주자인 Dubois Theodor의 작품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곱 말씀"을 연주합니다.

작곡자 Dubois는 파리 국립 음악원을 졸업 한 후 파리 국립 음악원원장으로 재직했고 19세기 후기 프랑스 고전주의 악파의 대표자로서 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곡 등 주옥같은 곡을 후대에 남기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곱 말씀"은 성경을 주제로 성 금요일을 위해 쓰여진 곡이나 실은 부활절에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활절 칸타타입니다.

서곡을 포함하여 모두 8곡으로 구성 된 이 곡은 제목에서 이미 시사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일곱 마디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짖음!

죽었던 죄인들은 다만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려고 합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 14일(금) 총회 100주년 기념 표준 주석 편집위원회에 참가 한다.

■ 사무실 이전
8교구 이동권집사(박경자권사) (주) 엔비오도봉구 창4동 농협하나로클럽 3층 311호 T.995-4101
2교구 김경진성도 엑스다임(주) 역삼동sk Hub B/D 504

■ 주간식당 봉사: 한나 전도회(4월9일) 스테반회(4월16일)

■ 금주의 식사 제공: 최규소 집사·노순례 집사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만민에게 전도- 선교사 중보기도팀

캄보디아에도 하나님 나라가

김신영 집사(캄보디아 중보기도팀장)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센터로 세움 받은 우리 서울교회는 향후 5년 내에 해외선교사 100명 이상을 파견하는 비전을 품고 선교 대열에 나섰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중 가장 험벗고 가난하다는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 매주일 기도하는 모임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 남쪽 나라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그 뜻이 새삼 놀랍고 크셔서 마음에 열심을 품게 됩니다.

캄보디아로 파송된 이재울, 박병진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로 후원하는 모임에서는 파송선교사님들이 보내온 선교자료와 정보를 나누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스무 명 남짓한 기도결연자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문화와 음식, 무더운 열대의 기후에 잘 적응하도록, 캄보디아의 언어인 크메르어에도 하

늘의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현지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도와 함께 사역하게 될 분들을 위하여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특히 캄보디아의 특성상 기독교인들의 동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캄보디아 군을 위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여름 7월에는 캄보디아 군 기갑사령부에서 주최하는 영어 캠프가 열릴 예정이고, 이 캠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든 기근과 열악한 경제구조로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생존을 걸고 시련을 견디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밤에 발전기를 돌리며 간식과 식사를 마련해 군부대에 공급하는 일로 복음의 문을 확장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복음 네트워크가 캄보디아에 뿌리내리고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다시 세움 받도록 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한 마음이 되어가는 이 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도 동참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성경대학을 비롯한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2. 새로 개교한 호산나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3. 북한의 신앙자유와 인권회복 위하여
4.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 되도록
5.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